



네일은
내 일입니다

TOGETHER⁺

함께

Vol.22 2017 SUMMER

04 특집 기획

즐겁게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스(GIBOOS)

06 현장 속으로 1

게임에 장애는 없다
'모두다'

10 현장 속으로 2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2

12 일하는 물

핀셋 잡스(Pincette jobs)를
아시나요?

14 인터뷰

해피닥터의원 정희현 원장,
'내일에서 on 편지'
10명 릴레이 키트 완성



사람의 추억과 인생을 담은 예지동 시계골목

좁은 골목 사이로 다닥다닥 밀집해 있는 시계방들.
 거리에 진열된 낡은 시계들과 색이 바랜 간판들이 웅기충기 모여있는 곳.
 이 시계골목에는 60년을 이어온 시계장인들이 함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사진의 진짜 주인공은 장인의 손에 들려 시계 수리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핀셋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품도 핀셋을 이용하면 섬세한 작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조상으로 하는 건 뻔한데 시계는 잘 만들어진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핀셋은 작은 부품 집기가 좋아 사용하는데 시계에 있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이라도 핀셋이 틀어지면 부속이 튀기 때문에 잘 갖고 맞춰 쓰는 거야.”
 이곳엔 고장 난 시계와 매일같이 눈을 맞추며 일하는 시계장인들이
 고객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한 시계를 수리하며 시계에 사람의 추억과 인생을 담는다.
 예지동 시계골목의 초침은 오늘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COVER STORY

손님의 작은 손톱 위에 손톱보다 더 작은 보석
 들이 오밀조밀 올라갑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
 니,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섬세함과 센스 감각을 요구하는 젤네일 전문가
 이자 네일메이커 여의도점 대표인 장주희 님이
 이번 호의 주인공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기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함께하는 일의 재미**
- 04 > 특집 기획
즐겁게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스(GIBOOS)
- 함께하는 일의 의미**
- 06 > 현장 속으로 1
게임에 장애는 없다 '모두다'
- 10 > 현장 속으로 2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2
- 함께하는 일의 흥미**
- 12 > 일하는 물
핀셋 잡스(Pincette jobs)를 아시나요?
- 내일에서 on 편지**
- 14 > 인터뷰
해피닥터의원 정희현 원장,
'내일에서 on 편지' 10명 릴레이 키트 완성
- 재단소식**
- 18 > 재단 동향 및 이슈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2 2017 SUMMER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7년 5월 25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즐겁게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스(GIBOOS)

'기부'하면 느껴지는 일단의 거부를 불식시키고, 재미있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세상에 대한 관심 또한 놓치지 않는 이들이 모여 '기부스'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가수, 고깃집 대표, 전 격투기 선수, 변호사, 작가 등 다양한 직업군이 모인 기부스의 재미있고 독특한 기부담을 들어봅시다.

글 | 기부스 김병준 작가



유쾌한 기부 방송, 기부스

'즐거운 기부', '유쾌한 기부'를 외치며 기부의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6명의 기부천사가 있다. 떠오르는 기부계의 섯별 정찬우와 국민 기부천사 선, 유쾌한 입담의 방송작가 이재국, 재판보다 방송을 더 많이 하는 스타변호사 박지훈, '고갈비 누나'로 통하는 <홍대 고갈비>의 천경희 대표, 격투기 선수 출신 이용수 대표가 재능기부로 2주마다 한 번씩 방송에 참여하고 있다. 바로 '기부스(GIBOOS)'이다. 기부스는 누구나 방송에 출연해 홍보할 것은 마음껏 홍보하고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원손이 한 일을 전 국민이 알도록 자랑하는 기부, 생색내는 기부, 재미있는 기부를 지향한다. 기부스에 출연하는 6명은 서로 다른 직업과 캐릭터이지만 하나같이 기부에 대한 한결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웃으며 2년이 넘도록 달려오고 있다. 작년 말부터는 인터넷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freecatv.com/giboo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기부도 받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TV는 플랫폼 내에서 화제로 통하는 '별풍선'에 대해 기부스 방송에서 발생된 별풍선에는 수수료를 떼지 않겠다고 밝혀 기부스의 즐거운 기부 문화에 흔쾌히 동참해주었다. 현재 기부스에 모인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기부금은 무려 19억 이상이다. 기부스는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팟캐스트로 만날 수 있으며, 격주로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부터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만날 수 있다. 2014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기부스는 사실 정찬우의 아이디어였다. 당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 정찬우는 어떻게 하면 광고를 쉽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큰 금액을 들여서 광고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광고방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광고료를 받아서 월 할가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 기부였다. 지금은 취지가 광고에서 기부로 완전히 바뀌었고, 기부를 하면 기부 받는 사람들이 가장 기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방송을 하면서 기부스 멤버들은 자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진정성이 담긴 기부 물품들

그동안 기부스에는 현금도 많이 들어왔지만, 정말 다양한 현물들이 기부되어왔다. 중국에서 칼 사업을 하는 분은 칼을 3,000만원어치 기부한 적이 있었고, 제주도에서 호텔업을 하는 분은 숙박 100박을 기부하신 분도 있었다. 꾸준히 오이를 기부해주시는 분, 법성포 영광굴비를 기부해주시는 분, 기부스에 들어오는 현물에는 없는 게 없을 정도이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뷔페 식사권을 기부한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한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10만원을 기부한다고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때 멤버들은 기부스를 진행하면서 가장 가슴 뭉클했던 경험이라고 회상한다. 기부받은 물품 중에 가장 황당했던 기부 물품도 있었는데 바로 성인용품이었다. 성인용품 쇼

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성인용품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어디에다가 기부할 것인가를 사회복지사와 상의를 했었는데, 결국 하루 만에 동이 났다. 사실상 장애인들에게 더 필요한 물품이었던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기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대중들이 느끼는 '무겁고 진중한 기부'라는 인식보다 '가볍고 유쾌한 기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기부스는 언제나 밝고 웃음이 끊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기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부금이 잘 쓰이는지' 등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하지만 기부스 방송을 접해보면 정말 쉽고 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기부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특히 아프리카TV를 통한 별풍선 기부는 방송을 보며 누구나 쉽게 클릭 한 번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멤버들과 시청자 모두가 만족스러운 새로운 기부문화로 정착되었다. "원손이 한 일을 전 국민이 알게 하라!" 기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색내는 방송, 기부스를 통해 대중들의 인식이 바뀌는 그날까지 기부스 멤버들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wf

GIBOOS



게임에 장애는 없다 '모두다'

다양한 게임의 세계에 입문하기 전 부딪히는 난감함,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모두다에는 게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도와주는, 일명 게임설명서 역할의 퍼실리테이터(게임대장)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달장애인이란 어떤가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두다 즐겁게 할 수 있는 평등한 게임 공간, 사회활동 공간, 만남의 공간을 지향하는 모두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글/정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답변 | 모두다 박비 대표

게임으로 함께하는 소셜벤처기업, 모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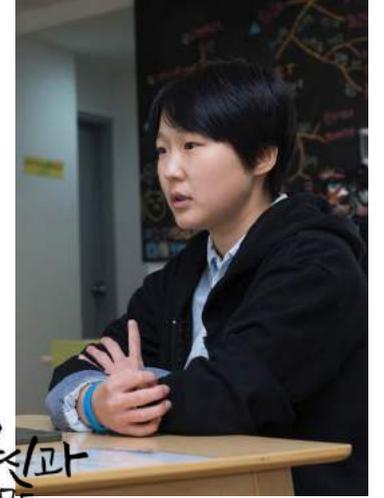
“모두다 카페는 저희가 하고있는 많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게임이 가진 가능성을 확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카페에 보드게임이 많아서 그렇지, 저희는 특정 플랫폼을 가리는 것은 아니고 게임을 개발하고 좋은 게임 경험을 확산시키는 기업입니다.” 게임으로 함께하는 소셜벤처라고 모두다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박비 대표, 다른 곳에는 없는 특별함이 이곳 '모두다'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모두다 공간을 만들기 전, 게임회사 사업PM으로 일하면서 유관 부서 조율관리 및 게임마케팅을 진행한 경험과 CSR 관련 미션을 수행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게임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봉사활동은 일회적이고 기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하는 일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오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치가 지속성 있게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게임으로 봉사하면서 창업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대중적으로 인식하기 쉽고 보드게임이 익숙해서 '보드카페'라고 명명했지만 모두다를 보드카페 전용공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보드게임이 약 250종,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HTC vive(대만 HTC사에서 개발한 VR기기) 등 다양한 게임을 선보이고 있지만 게임의 종류나 개수 보다는 전달하는 가치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합니다.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열린 공간

모두다는 현재 3개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호점은 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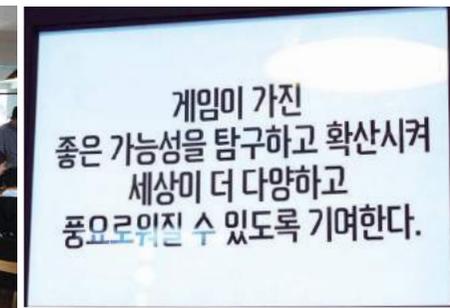


당선과
모두
즐거움공간,
모두다

게임공간 '모두다'의 박비 대표

베터(Bear Better)로 20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들이 인쇄, 제과, 꽃꽂이 등 제품을 생산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 공간이자 플레이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다가 처음 활동을 시작한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 1호점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에 5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한 달에 500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홍대점 2호점, 그리고 3호점은 서울숲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두다 멤버는 총 10명이고 이중 절반인 5명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이들을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게임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오면 게임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 달 이상의 고객을 위한 게임이용 안내 교육을 받습니다. 모두다는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접점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모두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서로에게 접근하여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 날 모두가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장애인들과 이들의 보호자, 그리고 비장애인들까지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모두다가 추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들의 갑작스러운 돌발행동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익숙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가장 따뜻한 색 파랑'이라는 캠페인을 기획했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파란 팔찌도 만들었다는 모두가,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박비 대표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2017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3호점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로 인한 고정비 지출로 공간 확장이 부담스럽지만 반복적이거나 동기부여가 될 뉘 일들을 게임화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장애, 비장애를 뛰어넘는 공간을 기반으로 스스로 굳건히 일어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해봅니다. wf



게임의 천재들



짧막 인터뷰 이동욱 퍼실리테이터(게임대장)

Q_ 모두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A_ 주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음료를 제조하는 카페 쪽 일도 함께하고 있지만 일단 손님이 오시면 게임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모두다 위치나 게임방법이 궁금해 전화가 올 때도 있는데, 그때도 물론 제가 응대하지요.

Q_ 퍼실리테이터로 활동하신다고 하니, 본인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게임을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A_ 텀블이라는 게임이에요. 젠가에서 약간 진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지는 게임이죠.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오는 도구의 면이 기저점이 되도록 도구를 쌓아올리는 게임인데 주사위에서 t자가 나오면 재량껏 블록을 쌓을 수 있어요. 중간에 도구들을 쌓다가 무너지는 블록이 많아지면 불리해지는 게임이고 구슬은 블록쌓기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한 장치예요. 이 게임은 개인전으로도 가능하고 여러 명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열심히 쌓아놓은 블록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게임이지요.

Q_ 모두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A_ 나중에 손님들이 가고 난 후 게임 물품이나 빈 그릇 등 뒷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들이 제가 만들어 드린 음료를 남기지 않고 다 드셨을 때 기운이 나오. 그리고 제가 설명해드린 게임에 재밌겠다고 호응해주시고 또 그렇게 즐기고 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보람찬 기분이 들어요.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게임 3선



01

한글 초성 게임_테마틱(난이도 ★☆☆☆☆)

미취학 아동과 함께할 수 있고 게임을 하면서 가족 간 대화량이 늘어날 것이며 빠르고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가 간편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게임 방법 : 테마에 맞는 단어를 제시된 초성에 따라 재빨리 외쳐야 합니다. 한글카드, 점수카드, 테마카드를 이용해 수많은 테마로 무한확장이 가능합니다.



02

내 마음을 읽어봐_딕싯(난이도 ★★★☆☆)

그림부터가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게임. 자신의 느낌이나 기분을 카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미술 치료에서도 사용된 게임으로 참여인원은 최대 6명까지 가능합니다.

::게임 방법 : 이야기꾼이 내려놓은 한 장의 카드를 맞추는 게임. 이야기꾼의 얘기를 듣고 비슷한 느낌의 섞여있는 카드를 고르는 것으로 이야기꾼의 심리를 꿰뚫어야 합니다.



03

매력적 홀릭 게임_오버워치(난이도 ★★★★★)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추천합니다. 팀플레이로 총 쏘는 게임이라고 해서 잔혹한 장면을 생각한다면 오산, 각각의 캐릭터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게임이라고도 하며 참여인원은 1팀이 6명 모이면 진행 가능합니다.

::게임 방법 : 공격과 수비팀을 나누어 자신의 거점을 지켜야 합니다. 거점 안의 적을 다 몰아낸 후에 추가시간이 끝날 때까지 지켜낸다면 거점을 완전히 확보한 팀이 승리합니다.



2017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2

함께일하는재단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Smile Together Partnership)을 통해 지구촌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아동의 보호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해외의 착한 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2017년 지원할 해외 착한 기업을 찾아 떠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글 | 국제협력팀 이명희 책임매니저

우간다 제리백(JerryBag)

현지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가방

“하루 몇 시간씩 물을 길러 가야하는 아이들, 책가방이 없어 학교에 가기 창피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물통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처음 재봉틀 두 대로 지역주민과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많은 격려와 동시에 많은 우려도 받았습니”라고 제리백의 공동대표 박중열 씨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국청년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겠다는 열망은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만든 가방을 한국과 핀란드에서 팔기 시작했고, 가방이 하나 팔리면 다른 가

방 한 개를 현지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줍음이 많은 우간다 시골의 한 아이가 제리백을 가지고 우물가로 오던 중 박 대표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그는 감동 어린게 이야기합니다.

가방의 제작과 판매 보급으로 현지 여성의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물을 길으며 학교에 다니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리백은 이제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지역 아동에게 더 많은 가방 지원과 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간다 여성 고용,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 인적자원개발재단(HRDF)

불가촉천민의 설움, 경제활동을 통해 딛고 일어나

인도에는 아직도 4개의 계급이 있고, 그 계급 간 차별도 심합니다. 그런데 그 계급에도 들지 못할 만큼 저급하여 만질 수도 없는 천민, '달릿(Dalit)'이라는 낙인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 인도인과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고, 축제 장소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마시는 물도, 사는 곳도 차별을 받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달릿이 오늘날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달릿 거주 지역에 모여 사는데, 강제로 그곳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경제력과 주변의 차별적인 태도, 종종 일어나는 달릿 집단폭행 등으로 한곳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STP팀이 방문한 곳은 달릿이 가장 많이 있다는 인도 남부 타밀나두 칸치푸름에 있는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여러 마을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이 되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가정이 대부분인 곳이었습니다. 양계·농업·재봉 등의 기초소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받은 여성들이 힘을 모아 조합을 이루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을 육아 및 가사와 병행하며 품앗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비영리 단체의 지원으로 기초교육을 받은 가정



들은 이제 기부자들의 지원을 통해 본인들의 자산으로 작게나마 닭을 키우고 채소도 키우며 재봉틀을 돌려 소득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wf

MINI INTERVIEW

'2017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서 STP 파트너를 만나다

인터뷰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제리백 박중열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작년에도 페어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일반관에 입점했었고 올해는 STP 지원을 받아 국제관에 따로 부스를 차려 참여하게 됐어요. 페어에 참여해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페어에서 판매할 물건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토틈백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방과 파우치를 판매하고 있어요. 디자인은 우간다 원단시장에서 골라온 것으로 제작하고 있고, 가방 하나를 판매

하면 하나가 기부되는 착한 시스템으로 우간다 현지 직원을 고용해 현지 생산물품들 편집숍에 들어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번 페어에서 얻어가고자 하는 게 있으신가요?

다른 것보다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목적이예요. 어쨌든 제리백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지난해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MILE TOGETHER PARTNERSHIP



HRDF_N.Dyanlan

페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STP 지원을 받아 참가하게 됐어요. 이벤트에 참여해 더 많은 제품을 팔아보고 싶었고요. 앞으로 지역사회 금고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싶어요. 또 지역사회 소액대출 사업이 발전해 지역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페어에서 판매할 물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선 샘플이 될 만한 것들을 가져왔어요. 조개로 만든 키체인은 쓰나미가 있을 후 일자리가 줄었는데 해변 근처 조개를 주워 그림을 새긴 수공예품이에요. 그리

고 핸드백은 마을 빈곤여성들이 재봉교육을 받고 난 후 만든 것으로 나중에 사회적기업에서 이 상품들을 판매할 예정이에요.

이번 페어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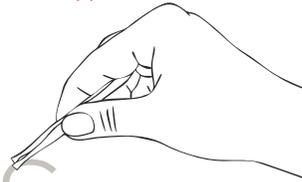
인도에 비해 한국은 손으로 만든 제품에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이번 페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인간존엄을 지켜주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핀셋 잡스 Pincette jobs를 아시나요?

같은 소재나 물건을 가지고 저마다 다양한 직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손으로 잡기 어려운 작은 물건을 잡는 데 사용하는 핀셋을 이용한 직업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글/취재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 두 개의 강판을 이어 그 앞쪽 끝으로 물건을 잡는 도구가 핀셋입니다. 여러분은 핀셋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시계수리전문가, 네일 아티스트 이외에도 검역원, 원예실험실, 각종 연구소 등 생리학, 화학, 기계공학 분야에서도 핀셋이 필요합니다. 무심히 지나쳤던 핀셋이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일자리 도구이자 삶을 이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



PINCETTE JOBS



시계 수리에 핀셋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송용호(예지사 시계수리전문가)

시계는 정교하고 예민한 제품이라 핀셋이랑 드라이버만 있으면 수리할 수 있어요. 핀셋은 작은 부품 집기가 좋아서 사용하는데 시계에 있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핀셋이 틀어지면 부속이 튀기 때문에 잘 갈고 맞춰 쓰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작은 물건이지만 시계 수리에는 없어서는 안 될 큰 물건이자, 기특하고 고마운 존재예요.

주얼리 작업에 핀셋은 절대필수 도구죠

나윤지(디오젬 주얼리)

귀금속인 반지나 목걸이에 부속품인 다이아몬드나 큐빅을 박을 때 핀셋을 사용합니다. 작은 보석을 구멍에 정확하게 박는 데는 핀셋만한 도구가 없지요. 보석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핀셋은 그래서 필수입니다. 작업대 위에 굴러다니는 보석 알들을 디자인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시키는 최고의 도구이자 저희에겐 첨단도구입니다.

핀셋 없는 병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희현(해피닥터의원 원장)

환자들을 치료할 때 핀셋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다친 환자들의 환부에 소독약을 발라줄 때 사용해요. 적당한 양의 솜을 집기에 좋고 상처 부위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핀셋만한 도구가 없거든요. 요즘 표현대로 '머스트 잇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환자들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데 핀셋은 정말 천사같은 존재예요.

핀셋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장주희(네일메이커 여의도점 대표)

보통 큐핑과 브이컷을 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브이컷은 세 가지 보석을 나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경우 핀셋을 많이 사용해요. 또 유리 네일이라고 유리 필름지를 사용할 때 역시 핀셋을 활용하죠. 집는 작업은 핀셋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일 관리할 때 컬러나 잔여물이 묻지 않고 작은 장식물 집기에 편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wi](#)



해피한 사람들의 해피한 기부 릴레이

해피닥터의원 정회현 원장, ‘내일에서 on 편지’ 10명 릴레이 키트 완성

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는 해피닥터의원 정회현 원장.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예쁜 얼굴은 물론, 예쁜 마음도 함께 선물해 주고 싶었던 원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내일에서 on 편지’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직원 명의로 참여했고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매년 2명씩 선정, 피부미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내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는 해피닥터의원 정회현 원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질문 | 경영기획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답변 | 해피닥터의원 정회현 원장

1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희 병원은 피부미용 관련 비만체형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진료를 하고 있지요. 최근 사람들이 웰빙과 뷰티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런 쪽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처음 기부를 제안 받으셨나요?

가까운 사촌에게서 기부를 제안 받았어요. 만날 때마다 평소 해왔던 고민을 얘기해왔고 병원에 맞춤 프로그램을 제안해와서 청년실업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3 ‘내일에서 on 편지(이하 내_편)’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부 캠페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내_편 이외에도 타 기관 나눔사업에도 동참하고 있어요. 나눔은 아무한테나 제안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므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상하관계는 있지만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캠페인에 동참한 취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_편은 본인과 잘 아는 사람에게 제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촌지간이더라도 제안하는 게 쉬운



“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

일은 아니죠. 평소 만남을 통해 사회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좋은 일로 끌어당기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직원들 명의로 ‘내_편’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굿에이징(Good aging)’이라는 말이

있죠. 올해로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10년차가 됩니다. 한 지역에서 병원을 오래 운영하다보니, 문득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데 지역사회에 제가 어떤 사회공헌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병원을 찾는 손님들이 얼굴만 예뻐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5 직원들의 명의로 후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저희 병원에는 근속자가 많은 편인데, 직원들이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에게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미지가 참 비슷합니다(웃음).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눔의 기회가 적시에 생겨서 좋았습니다.

6 평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해 주세요.
 현재는 사내 뷰티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어요. 직장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뷰티클래스는 예로 들면, 교내 CA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상호교환하고 바자회 수익금의 10%를 사회에 기부합니다.

7 원장님께서 지역사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환자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데 평소 환자분들과 상담하시면 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병원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과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고등학생 때부터 병원을 다녔는데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에도 방문하는 단골고객이 있어요. 이런 환자분들과는 학창 시절의 취업 걱정, 직장인이 되어 사내 갈등문제 등을 이야기해요. 오랜 시간 알아 와서 격의없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바람에 제가 환자분의 카운슬링을 하고 있는 셈이죠.

8 본인의 기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키트를 타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럽지는 않으셨나요?
 타인에게 제안을 해보지는 않아서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기부, 나눔은 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눔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면 마음의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도 잘 모르겠고요. 실질적으로 실천한다는 게 부담되는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9 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직접 직원들에게 제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직원들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좋은 봉사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서 미화활동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굿에이징'이란 말처럼 건강한 뷰티를 책임지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10 다음 릴레이는 누구에게 제안할 생각이신가요?
 제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안할 생각이예요. 선후배 의사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의사 사모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도 나누는 방법을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친구 또는 선후배와의 모임 자리에서 적당한 분위기에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wif](#)

“우리 해피닥터의원 직원들은 이미지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눔의 기회가 적시에 생겨서 좋았습니다”



✉ 내일에서 on 편지

가족, 직장, 친구, 동일 직업 등 10명이 모여 내일을 밝히는 나눔 키트에 참여해 주세요.
 (사연 문의 : 02-330-0715)

내일에서 on 편지 QR코드





신세계아이앤씨 특성화고 IT희망키움사업 IT's챌린지 대회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일하는재단은 미래 IT인재 육성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IT동아리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IT희망키움사업 IT's챌린지 대회'를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내 특성화고등학교 IT동아리이며, IT동아리별로 최대 300만원 상금을 포함한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일하는재단 홈페이지(www.hamkke.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10개 기관 참가**

세계 각국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나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5월 1일부터 5일 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습니다. 재단은 이번 행사에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 파트너 10개 기관과 참여해 상품과 지원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와 네팔, 베트남, 인도, 우간다의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봉과 천연염색, 직조 등의 상품을 전시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기업 지원' 협약식 진행**

함께일하는재단은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기업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에 앞서 지난 3월 24일, 한전아트센터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재단은 청년창업기업 5곳을 선정해 연 금리 1.5%의 대출사업을 진행합니다. 이후 성실 상환을 이행한 기업에 상환이자를 상금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2017 효성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확산을 돕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효성과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3월 22일, '문화복지 확산을 돕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3곳의 사회적기업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단법인 배리어 프리영화위원회, ㈜잇다, ㈜지역발전소 등 총 3곳이며, 사업비 최대 1,000만원과 컨설팅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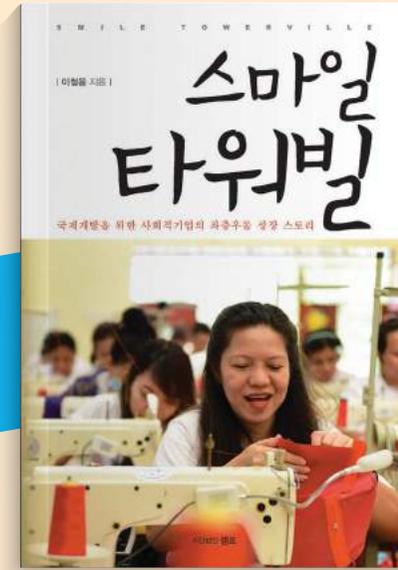
허그세어하우스 1호점 개소식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3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소재 허그세어하우스 1호점'에서 개소식 및 취업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허그세어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주학생에게 주변시설 6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취업진단 컨설팅 및 취업역량강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케어매니저 성과공유회 개최

유한김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지난 4월 12일, 경력단절 시니어들의 전문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인 '시니어케어매니저'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2016년 10월부터 5개월 간 시니어케어매니저로 활동한 시니어 30여 명의 성과와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재단은 올해에도 시니어케어매니저 2기 30명을 선발하여 총 60명의 시니어케어매니저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개발과 사회적기업의 좌충우돌 성장스토리
스마일 타워빌**

이철용 지음 / 사단법인 캠프 출판 / 304쪽 / 2017년 2월 23일 발행 / 13,000원

저자 이철용 대표는 목사이자 몽골외국인근로자 인터넷방송 대표, 장애인 인터넷신문 <위드뉴스> 대표에서 필리핀 재난 강제철거 집단 이주민지역 타워빌 현장활동가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는 '캠프 아시아' 이철용 대표가 국제개발과 사회적기업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신간 『스마일 타워빌』은 이 책은 저자가 필리핀 도시빈민 현장에서 현지법인 '캠프 아시아'를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봉제센터 '익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일매일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현지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중심적인 국제개발 접근방법을 선택한 저자는, 조금은 느린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국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읽어보길 희망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Tip
이 책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마일 타워빌>은 현지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중심형 국제개발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느리지만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대안들을 찾아가는 책입니다. 국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읽어보길 희망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이 아닌 현장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길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철용(저자 & 캠프 대표)



말만 해도 책이 만들어지는 아주 편한 인터뷰 자서전
“부모님의 몽클한 사연을 자서전으로 만드세요!”

부모님이 훌륭한 스토리텔러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삶을 한 번도 남에게, 제대로 얘기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말할 기회를 가진 적도 없고, 어떻게 말할지 방법도 알지 못하십니다. 학교에서 세계사, 국사는 배웠지만 우리가족의 역사는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태어나시던 날의 일화, 고향풍경,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일, 부모님이 좌절하고 극복하고 고민했던 일들은 바로 우리가족의 역사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그 역사를 남기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저 지나가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만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 철도에서 30년을 일하신 아버지, 입양한 딸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어머니, 몽클 스토리를 거쳐간 많은 부모님들의 자서전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발견하게 해드렸고 그분들 자신이 찬찬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드렸습니다.

몽클스토리 창립 2주년, 5월과 6월 이벤트 기간 동안 저희는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 자서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어린 본인이어도 좋습니다). 신형 노트북 한 대를 구매할 돈으로 부모님 자서전 10권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한 권씩 소장해 주세요. 영원하지 않은 인간의 삶이지만 부모님의 이야기는 길이길이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지금 '몽클스토리'에서 부모님의 자서전을 신청하세요.
 문의 | 010-6393-6530 | mooncle@moonclestory.com | www.moonclestory.com